

STRATEGY 21

통권41호 Vol. 20, No.1, Spring 2017

트럼프 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이 춘 근*

-
- I. 서론
 - II.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는 미국 해군과 역할
 - III.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군 건설 계획
 - IV.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 동아시아 해군 전략
 - V. 결론 : 미국 해군의 미래
-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2017년 1월 미국 45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군사력은 다시 막강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 그 효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전년 대비 10%, 즉 540억 달러 증액된 6,030억 달러를 2018년 국방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했다.¹⁾ 대한민국 2017년 도 국방비가 40조원으로 400억 달러가 채 못 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규모를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임 당시인 2011년 미국 의회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통과시킨 예산 감축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방비를 4,870억 절감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에 4950억 달러를 추가, 연 일정 부분을 자동적으로 감축시켜 총 1조 달러의 국방비를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미 미국의 수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국방비를 자동 감축시키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으로 인해 미국 군사력은 심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오던 중 내려진 조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자동 예산 감축 계획을 폐지하고 다시 국방비 증액의 시대를 열었다.

트럼프의 미국 군사력 강화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오바마의 국방 계획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미국 해군력을 350척의 주요 함정을 보유한 군사력으로 증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시대의 해군력을 '1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허약한 해군' 이라고 비난했다.²⁾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트럼프의 주장은 타당하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 600척 해군을 이야기했고 클린턴 당시 350-400척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 해군은 오바마가 퇴임할 무렵에는 270척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 상태다.³⁾

1) The New York Times, February 7, 2017.

2) 실제로 미국 해군이 양적 규모가 가장 작았던 시절은 1924년부터 1930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당시 미국 해군의 척수는 135-141척 수준이었다. 미국 해군력 규모 변동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미국 해군사 및 유산 기록 사령부(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history.navy.mil/research/histories/ship-histories/us-ship-force-levels.html>.

3) <https://www.history.navy.mil/research/histories/ship-histories/us-ship-force-levels.html>. 미국 해군이 보유한 각종 함정의 숫자에 관한 상세한 역사적 자료(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위 주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미 해군력은 역사상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했던 해는 1953년 1,122척이었다.

이미 미국 해군은 쇠퇴의 한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는 전문가⁴⁾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시대의 미국 해군이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막강함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2014년 현재 미국 해군력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 17개국의 해군을 다 합쳐 놓은 것만큼 강하다.”⁵⁾ 고 평가한 바 있다. 오바마 시대에도 미국 해군은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적의 해군이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해군은 얼마나 막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 해군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은 전임 대통령 오바마의 국방정책을 거의 전적으로 부정하며 군사력 증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를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해군이 허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중 하나로 미국 해군을 350척으로 늘릴 것임을 천명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2일 거행된 최신행 핵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CVN 79)함의 취역식에서 니미츠 제독이 했던 말을 다시 인용, 미국 해군의 전략적 기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미국 해군의 기능은 미국의 영토에서 적과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⁶⁾이라고 말이다.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할 수 있는 미국의 해양 전략과 해군력에 관한 분석이다. 물론 미국 해양 전략과 해군력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의 세계관과 국방에 관한 인식, 그리고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은 미국의 ‘전략 군사력’인 해군의 기능과 강조점,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이에 미국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주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문서들을 섭렵하는 문헌 조사 방법으로 통해 가능한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및 해군 정책을 보여주는 공식 문건들은 아직 간행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필자는 가용한 한도 내에서 기왕의 미국 해군관련 문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종합,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군을 그려

4) Seth Cropsey, *Mayday: The Decline of American Naval Supremacy* (New York: Overlook Duckworth, 2013).

5) Joseph S. Nye Jr., *Is American Century Over?* (New York: Polity, 2015).

6)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Trump Aboard the USS Gerald R. Ford.’ Newport News, Virginia (March 02, 2017). 원문은 “It is the function of the Navy to carry the war to the enemy so that we’ll not be fought on U.S. soil.”

보려고 한다.

Ⅱ.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는 미국 해군과 역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것이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군사력과 더불어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 자신은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덤벼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직후 2011년 이후 시행 되어오던 정부예산 절감 정책 중 군사 분야의 자동적 예산 절감 방안을 폐기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약 2주일 후, 전년보다 10% 증액된 6,030억 달러의 2018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취역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해군 정책과 국방정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연설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온 끝이 없는 예산 감축은 미국의 국방력을 훼손시켰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동예산감축안(sequester)과 시퀘스터가 창출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해군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더욱 쉽게 마련할 수 있게 하며, 그럼으로써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하며,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⁷⁾고 말했다.

기업가 출신인 대통령답게 트럼프는 ‘같은 군함, 같은 비행기를 더싼 값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해군의 공격력이 노후(老朽)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항모탐재기가 정비를 위해 묶여 있느라 하늘을 나는 시간이 적다고 말하며, 그 비행기들은 더 많은 시간 하늘을 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⁸⁾ 현재 미국 항공모함의 주력 탐재기는 개발 및 배치된 지 이미 30년

7) *Ibid.*

이 녀름 F-18 호넷(Hornet) 기이다. 비록 성능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항모 탑재기들은 이착륙 시 일반 공군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호넷은 미국 해군이 사용한 기간이 가장 긴 전투기라 말해도 될 정도다. 작금 개발 중인 F-35 C기가 미국 해군 항모의 주력 탑재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2040년대 이후에나 F-35를 항모 주력 기종으로 탑재할 예정이다.⁹⁾

트럼프는 대통령은 미국 해군을 1차 대전 이후 가장 소규모의 해군이라며 한탄한 후 “걱정 마시오. 미국 해군은 곧 1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가 될 것이오. 걱정 마시오.”¹⁰⁾라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말했듯이 미국 해군이 ‘양적’으로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해군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언급은 미국 해군을 질적으로 막강한 해군력으로 증강시켜 줄 것임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트럼프는 항공모함도 12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¹¹⁾

트럼프는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미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며 그것도 짧은 시일 이내에 그렇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군에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이 도구들은 필요할 경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우리는 다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왕 미국의 행정부들이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군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말도 했다. 자신이 미국군의 훌륭한 인간들로 구성된 미국군의 총사령관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어떤 일보다 영광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나는 매킨 햄장과 이 군함의 선원들에게 경례를 바칩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당신들의 사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쓰러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군복을 입고 이 나라의 방위를 위해 고생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나는 국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¹²⁾

8) 미국 항공모함의 주력 탑재기인 F-18 호넷 전투기들은 1983년 11월 이래 미국 해군이 34년이나 사용한 구형기종이며 아직 미국 해군은 이를 대체할 주력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9) “Navy, Air Force Are Exploring Concepts for a Next-Generation 6th Generation Fighter to Come After the F-35.” Kris Osborn March 1, 2017 <http://www.scout.com/military/warrior/story/1641046-most-read-2016-pentagon-new-6th-gen-fighter>.
 10)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02, 2017 Remarks by President Trump Aboard the USS Gerald R. Ford, Newport News, Virginia
 11) 2017년 현재 미국 해군의 항모 척수는 10척이다.
 12) *Op. cit.* Gerald Ford함 취역식 연설문.

며 군인들을 치하했다.

항공모함 취역식 연설답게 트럼프는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 항공모함이 가지는 핵심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항공모함과 포드 클래스의 새로운 항공모함들은 지구 먼 곳에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사활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군함의 힘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군함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적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용도를 반테러 전쟁까지 확대시킨 언급을 한 트럼프는 “해군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영토에서가 아니라 적의 영토에서 전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니미츠 제독의 유명한 언급을 인용한 후, 니미츠 제독이 지휘하고 승리함으로써 2차 대전의 분기점을 이룬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설명한다. 당시 활약했던 항공모함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 등 3척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했다.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한 항공모함 3척 모두 제럴드 포드 함이 건조된 곳과 같은 뉴포트 뉴스에서 건조되었던 군함들이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이 2월 28일 미국의회 연설에서 오바마의 시퀘스트레이션을 공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럼으로써 미국해군이 보다 막강한 전력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연설했다. 수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예산삭감 이후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의 국방비 증강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예산자동절감 장치 폐기로 인해 미국 해군은 더욱 용이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같은 군함을 더싼 값에, 같은 비행기를 더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그럼으로써 더 많은 군사력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신의 행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과시했다.

트럼프는 현대전쟁의 핵심 능력이 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강조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군수 산업의 확대는 일자리의 확대와 연계된다는 점도 강조하며 동시에 과학 기술의 진보도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적 개입주의를 포기하고 고립주의적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 같은 말들로 선거전을 치른 트럼프는 “미국은 항상 용감하게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이며, 나의 국방예산은 미국이 과거에 했던 바로 그 일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¹³⁾임을 강조한다. 취임 이후 트럼프의 대 아시아 및 대 유럽 정책은 선거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고립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트럼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함들은 세계의 바다를 항해할 것이며 미국의 비행기들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미국의 함대를 건조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 비록 하늘이 아주 캄캄할지라도 빛나는 태양이 언젠라도 다시 떠올라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밝게 비추도록 할 것이다. 우리 해군은 위대하다. 우리 해군은 위대하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위대하다.”고 연설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어떤 도전도 격파할 것이며 어떤 위협에도 맞설 것이며 언젠라도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트럼프는 4월 14일 미국과 세계인들이 보는 트윗을 통해 “미국 군사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다.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⁴⁾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힘은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한 것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 해군력은 급격히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국민들은 군사력 증강에 열정적일 것이 분명한 공화당이 지배하는 백악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모양의 해군을 갖추려 하고 있으며 과연 그 같은 해군의 건설은 가능한 것일까?

Ⅲ.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군 건설 계획

1. 트럼프 임기 시작 시 미국 해군의 현황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미국 해군의 군함 척수는 대략 270-290척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양적(量的)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바마 시대의 미국 해군

13) 동 연설문. 본문은 “America has always been the country that boldly leads the world into the future, and my budget will ensure we do so and continue to do exactly that.”

14) 영문 원문을 인용한다. “Our military is building and is rapidly becoming stronger than ever before. Frankly, we have no choice!” Donald J. Trump@realDonaldTrump, April 14, 2017.

은 1차 세계 대전 후 1924년부터 1930년까지 7년을 제외하면 가장 소규모인 미국 해군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오바마 재임 중 미국 해군의 양적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았다.

〈표 1〉 오바마 시대 미국 해군의 양적 규모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척수	285	288	284	287	285	289	271	275

물론 양적 규모가 작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미국 해군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취역하게 된 줘일트급(Zumwalt Class) 구축함 DDG 1000 1척은 갖추고 있는 장비 면에서는 물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 프리깃함 혹은 기왕의 구축함들과 그 전력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숫자상으로는 줘일트 함도 미국 해군함정 275척 중 1척에 불과하지만 같은 1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줘일트 함은 기왕의 구축함이 진입할 수 없는 취약한 지역에도 마음 놓고 진입해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전역(戰域)에서 줘일트 1척은 다른 군함 수십 척보다도 오히려 더욱 막강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10척, 순양함 22척, 구축함 62척, 신형 구축함 1척, 연안전투함(LCS: Littoral Combat Ship) 8척, 공격 잠수함 52척, 전략핵잠수함 14척, 기타 전투함 71척 등 총 275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줘일트 구축함이 추가 되었다는 사실과 수년 전에 비해 연안 전투함의 척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1년 당시 2척에 불과했던 LCS가 2012년에는 3척, 2013, 2014년에는 4척, 2015년에는 5척, 2016년에는 8척으로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줘일트 구축함 역시 적국의 연안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해군은 연안 전투 능력의 증강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역시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重視)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바처럼 강력한 군사력의 구축을 통하여 힘에 기반한 국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해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의 직접적 마찰을 우려한 오바마 행정부는 해양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데 부정적이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에도 소극적이었다.¹⁵⁾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 해군은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이하 FON)을 여러 차례 걸쳐 진행한 바 있었지만 중국이 남지나해의 산호초들을 인공 섬으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 방해하거나 노골적으로 막은 적은 없었다. 결국 중국은 오바마 퇴임 무렵 7개에 이르는 인공 섬을 완성해 놓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섬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2. 335척 미국 해군 건설 계획의 내용과 전망

군사력 건설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군함정의 건조 비용은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취역식을 한 제럴드 포드 핵 항공모함의 척당 가격은 104억 4,000만 달러(약 11조 원)에 이른다. 제럴드 포드 클래스 항모 한 척 가격이 대한민국 2017년 국방비의 1/4 이상인 것이다. 과연 미국의 경제적 여력이 이 정도의 국방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미국은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다. 2030년까지 355척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은 매년 1.9~2.2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며 대략 46억~51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¹⁶⁾

미국은 국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없다고 보아도 될 나라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GDP의 4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했었고 한국 전쟁 당시 GDP 대비 13%, 냉전 시대 전체 평균 약 6%대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했다.¹⁷⁾ 트럼프가 제안한 2018년도 6,0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안은 2016년도 미국 GDP 18조 5,600억 달러의 3.2% 정도의 금액이다. 3.2%는 냉전 시대 미국 평균 국방비 지출(6%~12%)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하는, 미국 국방비 지출역사

15) 김기주, “트럼프 시대 美 해군력 부활의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2017년 4월 11일자.

16)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CRS 7-5700, February 2, 2017).

17) Dinah Walker, “Trends in U.S. Military Spendi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5, 2014).

와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국방비다.¹⁸⁾ 미국은 돈이 없어서 트럼프의 355척 해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트럼프 다음 행정부에서도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정책이 지속될 것이냐의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 중 약속했던 미국 해군을 350척 해군으로 증강 시킬 것이라는 공약에 고무된 미국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2월 15일, 미국 해군 전력 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의 공약보다 5척이 더 많은 355척의 해군을 요청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군이 행한 전력 구조평가(FSA: Force Structure Assessment)에 따른 것이며 FSA는 미국해군의 전투 사령관들(combatant commanders)이 자신들의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함의 종류와 숫자를 평가한 자료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다. 미국 해군은 수년마다 한 번씩 전력구조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군함이 바다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도가 있다. 미국 해군은 7개월 해상근무라는 평균을 설정하고 있지만 군함의 숫자가 부족할 경우 바다에서 근무해야 할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장병들의 피로도(疲勞度)는 물론 기계들인 군함들도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린너트 제독(Admiral Jonathan Greenert)은 병사들과 군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 해군은 적어도 450척의 군함을 보유해야만 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¹⁹⁾

그러나 예산 및 다른 요인의 제약 때문에 원하는 군사력을 다 갖추고 있기는 어렵다. 미국 해군 장교들은 군함의 숫자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그에 앞서 기존 군함의 능력을 향상 혹은 유지시키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존의 군함들이 제대로 유지, 보완되어야만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은 2015년 3월 308척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자동 감축 계획이 진행 중인 당시 270~290척 정도로 감축되었지만 최근 제출된 해군력 건설 계획안인 355척 안은 308척 안보다 무려 47척의 군함을 더 보유하는 것이다. 증강분에 포함되는 군함들은 18척의 공격 잠수함, 1척의 항공모함, 16척의 대형 전투함(순양함 및 구축함), 4척의 상륙전함, 기타 8척 등이다. 355척 해군 계획은 2002년~2004년 계획이었던 375척]

18) *Ibid.*

19) Admiral Greenert 2015년 3월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언급.

해군 이래 최대의 건함 계획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 해군의 건함 계획 목표는 대체적으로 300척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약속했던 350척 해군 계획과 미 해군이 제출한 355척 건함 계획은 사실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다.

2017년 1월 27일, 취임 1주일 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 재건에 관한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랜덤’(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이 메모랜덤에는 국방장관은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작성,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NDS를 작성하는 목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maximum strategic flexibility)을 부여함으로써 요구에 부합하는 군사력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355척 해군 건설은 물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355척 해군은 1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인데 현재의 군함 건조 계획 수준을 고려한다면 2030년이 되어야 12척 항모가 가능하다. 355척 해군 계획이 상정하고 있는 66척의 공격 잠수함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매년 3척의 공격 잠수함 혹은 2척의 공격 잠수함과 1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대 후반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함 척수의 증가는 당연히 해군 병력수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5척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략 15,000명 정도 해군 병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²⁰⁾

355척 해군은 기왕의 308척 해군과 강조하는 군함의 종류도 다르다. 공격 핵 잠수함은 두 계획 모두 12척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355척 해군은 308척 해군에 비해 공격용 잠수함이 18척 증강되었다는 사실과 대형 수상 전투함이 16척 증강되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크게 다르다. 수상 전투함 16척 상당부분이 순양함, 구축함 등 대형 전투함(Large Combat Ships)이라는 사실, 상륙전함이 4척 증가되었다는 사실 등은 미국 해군이 향후 적국의 군함과 수상 전투를 벌일 가능성과 상륙작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bid.*, p.4. 18척의 추가된 공격 잠수함(척당 132명 승조원) 2,376명, 항공모함 1척당 4,500명, 추가된 구축함 16척에 5,264명(척당 329명), 추가된 상륙함 4척에 1,520명(척당 380명)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구형 항모는 6,000명의 병력을 필요로 하지만 Gerald Ford급 신형 항모는 필요한 승무원의 숫자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게 했다.

355척 해군 계획은 항공모함의 숫자도 11척에서 12척으로 올려 잡고 있다. 적국에 대한 공격 작전 혹은 힘의 과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IV.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 동아시아 해군 전략

1. 중국은 미국의 현실적 패권 도전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가 선거전에서 구호로 사용한 용어처럼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및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Leadership)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국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방법론을 선택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고립주의’라고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 직후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와는 관계가 먼 것이었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세계적 차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이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 미국이 세계의 문제에서 빠지거나 고립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제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자국민들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신속한 보복 폭격을 단행했으며²¹⁾ 며칠 후인 4월 13일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ISIS 기지에 최대의 재래식 폭탄인 폭탄의 어머니(MOAB: Mother of all bombs)를 투하했다. 2017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은 곧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는 “그럴 일은 없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응수했다. 2월 12일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며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21) 2017년 4월 6일 저녁 8시 40분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 화학 무기를 투하한 비행기가 출격했던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켜 버렸다. *Fox News*, April 7, 2017.

미국 해군은 작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취임이후 최초의 대규모 군사력 사용인 4월 6일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은 지중해를 순항 중이던 미국 군함 두 척이 단행한 군사작전이었다.²²⁾

한반도 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월 5일 미국 샌 디에고 항을 출발한 핵 항공모함 칼 빈슨 호는 5월 초인 현재도 남지나해의 분쟁 지역과 한반도 인근 수역을 항해하며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4월 24일 미국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호도 한반도 수역에 도착,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서 대처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향후 보다 체계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데 그 주요 해역이 동북아시아로부터 말레이 반도에 이르는 서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해로를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 해군의 전략적 임무는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싸우게 될 일을 막는 것이다. 이들 임무들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외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 미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다. 미국의 적들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 격멸될 수 있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해군은 미국의 진정한 전략세력(Strategic Force)이다.²³⁾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 해군은 마찬가지로 전략군사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중국 해군을 잠재적 맞수로 설정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략적인 면에서 미국과 적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잠재적국으로 인식되지만 2016년 러시아의 GDP가 미국의 7%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러시아의 해군력이 그동안 몰락 추세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러시아의 해군은 향후 미국의 심각한 적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을 이룩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2위권의 부(wealth)를 갖추게 된 중국만이 적어도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나마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실제로 중국은 지역패권 추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이미 자신의 앞바다인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미국의 세력을 배재하고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할 것을 전략적 목

22) 작전에 참가한 군함은 Ross(DDG-71)와 Porter(DDG-78)호였다.

23) George Freedman,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Crown, 1997).

표로 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전략을 A2AD(Anti Access/Area Denial 반 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라고 명명하고 대처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력의 증강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다.²⁴⁾ 미국 해군이 355척 해군으로 증강 계획을 발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²⁵⁾

미국도 물론이지만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은 없었다.²⁶⁾ 1990년 이래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확립한 미국은 한때 일본, 유럽 등을 미국의 패권 대한 도전국으로 간주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2000년 이후 미국이 상정한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은 중국으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중국이 잠재적인 도전자로 확정된 이후, 미국의 국가전략은 결국 중국의 패권 도전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귀결된다. 미국 의회는 국가방위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00)에 의거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이미 2000년 회계연도부터 법률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국방부는 중국군사 관련 새로운 보고서를 매년 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도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군사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²⁸⁾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 가장 유용한 군사력이 해군일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점차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 해군력의 큰 도전에 당면하고 있지만²⁹⁾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위협이 미국 본토에 다다른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4) 중국의 해군력 근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에 관한 가장 자세한 보고서 중 하나는 Rolan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L 33153, March 29, 2017.

25) O'Rourke, *Op. cit.*, p.5.

26)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27) 관련 논의는 이춘근, 『미중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김 앤김 북스, 2016)을 참조.

28) Peter Navarro, *Crouching Tiger: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New York: Prometheus, 2015); Fred Fleitz et.al, *Warning Order: China Prepares for Conflict, and Why We Must Do the Same* (New York: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6).

29) O'Rourke, *Op. cit.*, p.5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toward Asia-Pacific)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향후 수십 년 이상 중국이 붕괴하거나 몰락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2. 중국의 도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

트럼프가 취임한 후 3주가 지난 2월 13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해군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선언한 남지나해의 섬들에 대해 더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³⁰⁾ 중국은 남지나해에 산재한 여러 섬들을 모두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며 산호초 등을 매립, 다수의 인공섬들을 만들어 놓았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중국의 주장과 행동에 반대하며 중국과 영토분쟁 중에 있지만 이들 중 어떤 나라도 스스로의 해군력으로 중국의 불법행위에 대항할 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소했던 남지나해의 분쟁에 대해 만장일치의 판결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이 같은 결정은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의 지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으며, 판결 당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해군에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국제법 혹은 국제기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비 미국적인 전략으로 갈등 회피에 급급해 왔던 오바마 정부와는 전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남지나해에서 훨씬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을 향한 경고는 2017년 1월 11일 행해진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 냈다.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첫째, 더 이상 인공 섬을 건설하지 말 것, 둘째, 중국의 인공 섬들에 대한 접근을 미국은 허용하지 않을 것”³¹⁾이라고 말했다.

30) 14 Feb 2017 REUTER 통신 Kristina Wong 기자 보도.

31) 본문은 We're going to have to send China a clear signal that, first, the island-building stops,” Mr. Tillerson told the senators. “And second, your access to those islands also is

틸러슨의 언급은 중국이 수년 동안 건설해 놓은 섬들에 중국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급이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틸러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일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모른다. 1월 5일 미국 제3함대의 모항인 샌 디에고 항에서 칼 빈슨호(Carl Vinson)가 서태평양을 향해 출동했기 때문이다. 제3함대가 제7함대 구역인 서태평양 수역에 진출해서 훈련을 하며 제3함대의 지휘를 계속 받고 있다는 상황은 전략적으로 예외적이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함대 소속 군함이 7함대 구역에서 작전하며 3함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일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³²⁾

2차 대전 종식 이후 해체되었다가 1973년 다시 재건된 3함대는 날자 변경선 동쪽의 미국 서부 해안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대다. 3함대의 군함이 종종 날짜 변경선을 넘어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3함대 군함은 7함대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2017년 1월 서태평양의 7함대에 진입한 3함대의 제 1항모전투단은 샌 디에고에 위치한 3함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즉 미국은 서태평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개의 함대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양, 동중국해, 동해와 서해 등에서 공세적 압박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소위 ‘포함외교’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 해군은 최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 항공모함, 최근 급속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연안 전투함(LCS) 및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함을 동아시아 수역에 배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해양국가로서 미 해군력을 부활시키는 것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다시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해양의 안정과 자유를 유지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다.³³⁾

3. 항행의 자유작전

이미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단행한 바 있는 작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not going to be allowed.” *The New York Times*, Jan. 12, 2017.

32) The San Diego Union Tribune, January 6, 2017.

33) 김기주, *Op.cit.*,

보다 빈번하고 과감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행의 자유작전이란 중국이 선포한 인공 섬에 대해 선언한 영해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해양법상 인공 섬은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중국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인공 섬들에 12해리 영해를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해양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이 영해라고 선언한 해역에 대해 미국 군함을 항진하도록 하든가 혹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의 상공에 미국의 군용항공기를 날게 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호주 항공기도 미국의 FON 작전에 동조,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상공을 비행한 바 있었고 일본의 아베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일본도 FON 작전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13일 남지나 및 동지나 해에서 FON 훈련을 더욱 빈번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중국이 건설한 스프라틀리 및 파라셀 군도의 인공 섬들에 더 많은 군수물자를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나온 조치다. 이미 미국이 정기적으로 항해오던 이 훈련은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제독의 허락이 떨어진 상황이다. 매티스 장관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 안건은 미국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게 될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7년 2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던 중,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가장 막강한 라이벌 격인 일본에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신뢰를 파괴시켰다.”(“China has shredded the trust of nations in the region.”)라며 대단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비난했다.³⁴⁾ “항해의 자유는 그것이 상업적인 것이던 혹은 미국 해군에 관한 것이던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국제수역을 지킬 것이며 타당한 한 국제수역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것이다.”³⁵⁾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미 미국 해군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전직 구축함 함장 출신인 미국 해군 예비역 장교인 브라이언 맥그레이스

34) Associate Press February 4, 2017.

35) “Freedom of navigation is absolute, and whether it be commercial shipping or our U.S. Navy, we will practice in international waters and transit international waters as appropriate.” <http://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7/02/14/us-navy-planning-operations-near-chinese-claimed-islands/>에서 인용함.

36) David B. Larter, “The Navy is planning fresh challenges to 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Navy Times*, February 12, 2017.

(Bryan McGrath)는 항행의 자유작전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마을에 새 보안관이 부임해 왔다. 새 보안관은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편견이 없는 자유 향해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우리는 당신네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오.”³⁷⁾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이 화내는 것이 두려워 이 작전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재가(裁可)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법적인 조치³⁸⁾를 묵인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불법을 불문율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항행의 자유작전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는 대단히 상이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대단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과의 직접적 갈등을 회피하고자 노력했다. 오바마 재임기간 중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작은 군도(archipelago)들과 산호초(reefs)를 군사화시키는 조치를 진행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보다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야기되는 패권 경쟁의 산물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당선자 신분으로 대만의 차이원 총통의 전화를 받음으로써 1979년 카터 대통령 이래 미국 대통령은 대만 총통과 통화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³⁹⁾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트럼프라는 특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힘의 관계 변화가 초래한 구조적인 긴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 수상 아베신조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인 2017년 2월 8일 중국의 KJ-200 조기경보기와 미국의 P-3 초계기는 300m 이내에서 비행하는 위험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⁴⁰⁾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2017년 4월 26일 미 하원 군사위

37) 위의 Breitbart News에서 재인용. “We’re not doing this because ‘we don’t like you, China. We’re doing this because this is what we do.”

38) 인공 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해양법의 규약이다.

39)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중국에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은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영국의 Economist 지는 2017년 3월 11일자에서 “중국이 하나뿐이라는 정치적인 소설(political fic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40) Mike Yeo, “US, Chinese aircraft in ‘unsafe’ encounter in South China Sea,” *The Defense Times Internet* 판, February 9, 2017.

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곧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⁴¹⁾ 5월 초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항행의 자유작전의 시행을 재가하지 않은 상황⁴²⁾인데 미국이 당장 시급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CNN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CNN의 적개심,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의 과거 언급 등을 고려할 때 보도의 신빙성은 의문스럽다. 미국 해군 고위급 제독들은 모두 FON작전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조정기간을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CNN 역시 “미국 국무부관리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결코’ 중지되지 않을 것”(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won't be stopping.)이라는 언급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트럼프가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양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자유 항해는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가 중국에 양보를 했다고 보다는 우선순위 상 앞에 놓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인 조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바다에서의 자유 항해 원칙은 해양국가인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대전략상의 원칙이다. 미국의 세계 대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자유 항해의 원칙이다.⁴³⁾ 미국 해군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력이며 미국 해군은 자유 항해의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V. 결론 : 미국 해군의 미래

미국을 건국한 국부(國父 : founding fathers)들은 미국이 해양 국가이며, 해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41) “U.S. admiral sees new South China Se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World News*, Wed, Apr. 26, 2017. Internet 판.

42) CNN May 5, 2017 보도.

43) Sarah De Geest and Peter G. Cornett,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Liberal World Order,” July 25th, 2016.

100년 이상 막강한 군사국가가 아니었으며 특히 해군 국가는 전혀 아니었다. 겨우 지중해에서 해적과 싸울 수 있는 수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도 해군은 별 의미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 미국 해군은 확대 강화되었지만 전쟁 이후 또다시 쇠락의 길을 걸었었다. 미국이 독립한 후 102년이 지난 1878년, 미국 해군은 세계 12등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군대였다.⁴⁴⁾

이처럼 별 볼 일 없었던 미국 해군은 1890년대 미국 해군대학 교수인 알프레드 테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이론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강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1898년 발발했던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미국의 정치가 및 국민들에게 마한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음을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한의 주장은 국가의 위대성은 ‘막강한 해군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의 전 세계적인 경제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⁴⁵⁾

마한의 이론에 따라 건설된 미국의 함대는 세계의 주요 해로를 장악하기 위해 적국의 해군을 바다위에서 격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미국의 해군은 바다위에서 적국의 해군과 싸워 그들을 격멸함으로써 적국 해군을 무력화시킨 후, 미국 해군이 세계의 모든 주요 해로를 안전하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해군 전략은 1890년 이래 1990년 소련이 몰락하는 순간까지 100년 동안 미국 해군전략의 기본이 되었다.

냉전(Cold War)을 승리로 종결시킨 미국의 기본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지속,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이 발표한 각종 전략에 관한 보고서들은, 예외 없이,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 목표라고 밝히고 있었다. 2012년 1월 5일 미국 국방부에서 간행된 미국의 국가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을 정도였다.⁴⁶⁾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정도 지난 현재 트럼프 시대의 해군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44) Bernard D. Cole, *Asian Maritime Strategies: Navigating Troubled Water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3), p.40. 이 책의 번역판은 이춘근(역) 『격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해양 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45)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1890. reprint edition).

46)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the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January 5, 2012.

트럼프는 해군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통해 오바마의 대아시아 정책인 ‘Pivot to Asia’를 힘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밀고 나갈 것이다. 미국 해군은 트럼프의 지원 약속에 고무되어 355척 해군 계획을 수립했고 2030년의 미국 해군은 현재보다 훨씬 막강한 해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 이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3함대 앞으로!”(3rd Fleet Forward)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 2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017년 1월 5일 3함대의 모항(母港) 샌 디에고 모항을 출발한 칼 빈슨 항모전투단은 지속적으로 3함대의 지휘를 받으며 5월인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이 미국의 공장 6만 개를 문 닫게 하고 미국의 노동자 30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믿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이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에 배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당분간 중국과 대결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 해군은 결코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 군사력의 입지를 막강하게 유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주, “트럼프 시대 美 해군력 부활의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2017년 4월 11일자.
- 이춘근, 『미중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김 앤김 북스, 2016).
- 이춘근(역) 『격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해양 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 Cole, Bernard D., *Asian Maritime Strategies: Navigating Troubled Water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3).
- Cropsey, Seth, *Mayday: The Decline of American Naval Supremacy* (New York: Overlook Duckworth, 2013).
- Fleitz Fred, et.al. *Warning Order: China Prepares for Conflict, and Why We Must Do the Same* (New York: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6).
- Freedman, George,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Crown, 1997).
- Geest Sarah De, and Cornett Peter G.,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Liberal World Order.” July 25th, 2016.
- Kris Osborn, “Navy, Air Force Are Exploring Concepts for a Next-Generation 6th Generation Fighter to Come After the F-35.” March 1, 2017.
- Larter, David B., “The Navy is planning fresh challenges to 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Navy Times*, February 12, 2017.
- Luttwak, Edward N.,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1890. reprint edition).
- Navarro, Peter, *Crouching Tiger: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New York: Prometheus, 2015).
- Nye, Joseph S. Jr., *Is American Century Over?* (New York: Polity, 2015).
- O’Rourke, Ronald,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7-5700, February 2, 2017).
- O’Rourke, Rolan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L 33153, March 29, 2017.
-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02, 2017 Remarks by

President Trump Aboard the USS Gerald R. Ford, Newport News, Virginia.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the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January 5, 2012.

Walker, Dinah, “Trends in U.S. Military Spendi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5, 2014).

World News, “U.S. admiral sees new South China Se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Wed. Apr. 26, 2017. Internet 판

Yeo, Mike, “US, Chinese aircraft in ‘unsafe’ encounter in South China Sea” *The Defense Times Internet* 판, February 9, 2017.

Gerald Ford함 취역식 연설문.

CNN May 5, 2017 보도.

Fox News April 7, 2017.

The New York Times, February 7, 2017.

The San Diego Union Tribune, January 6, 2017.

14 Feb 2017 REUTER 통신 Kristina Wong 기자 보도.

<https://www.history.navy.mil/research/histories/ship-histories/us-ship-force-levels.html>.

<https://www.history.navy.mil/research/histories/ship-histories/us-ship-force-levels.html>.

<http://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7/02/14/us-navy-planning-operations-near-chinese-claimed-islands/>.

Abstract

US Navy'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in Trump's Era

Lee Choon-Keun*

The Mahan's seapower theory has been the basis of US Navy to date as it can enjoy the supremacy status in all of the seas of the world. His theory is very straightforward. A nation can be a great country in the world just through the use of maritime commerce that could be protected by a strong and powerful navy. Mahan's theory on seapower was substantiated in the Spanish-American War with respect to how important the naval power is.

The best thing to make US a great nation was to make sure that flow of international trade is smooth, and the unhindered trade could be made possible only by the destruction of enemy's fleet that may obstruct the SLOCs. That's why Mahan insisted that a strong navy was needed and a decisive battle by the navy's fleet at sea should be encouraged as a way of ensuring the safety of the SLOCs.

The newly-arrived Trump administration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Mahan's theory seapower in its policy on naval forces 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U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ivot to Asia policy that has been adopt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rough an increase in its naval fleet forces. The number of US navy ships will be 355 in 2030, rendering it much more powerful navy than before.

The catch phrase "3rd Fleet Forward" proposed by the president Trump indicates that two carrier strike groups will be pres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 being able to make the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more

*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IMS.

tense than before. The presence of the US naval forces in the area may function as some sort of pressure against China that Trump insisted had been responsible for the closure of 60,000 factories and the loss of 3,000,000 jobs in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Mahan, Sea Power, Presence, Carrier Strike Group, US Navy, Fleet

논문접수: 2017년 5월 1일 | 논문심사: 2017년 5월 15일 | 게재확정: 2017년 5월 20일